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그릿의 매개효과

신명옥¹, 방해순^{2*}¹한세대학교 사회복지행정학과 박사과정, ²군포시립삼성마을어린이집원장

Effects of Social Support on Aggression in Adolescents: The Mediating Role of Grit

Myung-Oag Shin¹, Hae-Soon Bang^{2*}¹Hansei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Social Welfare²Children's Home in Samsung Village, Gunpo City

요약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과 그 관계에서 그릿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2018 아동·청소년 패널(KCYPS)조사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조사 대상자는 중학교 1학년 2,590명을 선정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방법은 Baron & Kenny의 회귀분석과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결과 첫째,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인 부모지지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그릿이 부분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인 친구지지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그릿이 부분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인 교사지지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그릿이 부분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청소년의 공격성을 낮추고 그릿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키워드 : 사회적 지지, 부모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 공격성, 그릿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was to verify the mediated effect of grit in the relationship with the effect of youth social support on aggression. To this end, data from the 2018 Children and Youth Panel (KCYPs) survey were used, and 2,590 first-year middle school students were selected and analyzed. As for the analysis method, Baron & Kenny's regression analysis and Sobel Test were performed. As a result of the main analysis, first, it was found that grit had a partial mediating effect in the effect of parental support, a sub-factor of social support of adolescents, on aggression. Second, it was found that grit had a partial mediating effect in the effect of friend support, a sub-factor of social support of adolescents, on aggression. Third, it was found that grit had a partial mediating effect in the effect of teacher support, a sub-factor of social support of adolescents, on aggression. Based on the above research results, various program development and policy alternatives that can reduce youth aggression and improve grit were suggested.

Key Words : Social support, Parents support friend support, Teacher support, Aggression, The aggression of adolescents, Grit

1. 서론

최근 방송이나 언론 매체를 통해서 보도되는 청소년의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이 갈수록 심각해져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전체 청소년 중 10-14세 미만 촉법소년은 10년 전보다 줄었지만 2017년부터 다시 증가하여 3,167명이었고 2021

년에 10,915명으로 약 7천명 정도 증가하였다[1]. 이처럼 촉법소년 재증가는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공격성이 과격화되는 연령대를 이전보다 점점 하향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2].

이 시기는 청소년의 발달적 관점에서 본다면, 분노와 공격성, 과격한 행동이 분출되며 급격한 신체적인 변화로 인한 불안감이 표출되는데 이를 조절하지 못해 발생한 결

*Corresponding Author : Hae-Soon Bang(newsaeam@hanmail.net)

Received September 2, 2022

Accepted October 20, 2022

Revised September 23, 2022

Published October 28, 2022

과라고 볼 수 있다. 청소년은 분노, 증오, 적의, 불만 등의 부정적인 감정에 의해 자기 자신이나 타인에게 손해 및 상해, 공포감 등을 일으키는 행동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공격성이라고 정의한다[3]. 또한, 공격성은 바람직하지 않은 언어나 행동으로 주변인에게 해를 입히는 것을 의미한다. 즉, 공격성은 청소년 문제행동의 원인이며,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신체적·정신적으로 피해를 주는 행동과[4] 자신에게 의도적으로 고통이나 상처 등을 주려는 행위이다[5,6].

외국연구[7,8]에서도 연령이 증가하면서 잠재되어 있던 공격성은 더욱 심각한 범죄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청소년기부터 발현속도가 점차적으로 증가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청소년의 공격성을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대처하게 되면 범죄 행동으로까지 전가 되는 것을 줄일 수 있고,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9]. 청소년의 공격적 성향은 이 시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후 성인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결과적으로 사회적 비용의 증가와 함께 세대통합의 어려움으로 사회적 관심이 매우 요구된다[10].

다른 선행연구[11,12]에서도 타인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는 것을 공격성이라고 하였으며, 청소년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성격, 스트레스, 가족관계, 또래관계, 가정폭력 등 다양한 개인적·사회적 요인들을 보고하였다[13]. 따라서 청소년의 공격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긍정요인에 대한 파악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청소년 관련 정책과 프로그램의 대안점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살펴보면, 폭력 경험 이외에도 주의집중 문제, 스마트폰 의존도, 그릇, 사회적 지지, 자기조절 능력, 자아존중감 등의 요인들을 들 수 있다[14-17]. 이처럼 청소년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지만, 그중에서도 긍정요인인 사회적 지지와는 매우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인 부모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와 공격성의 관계에 주목하여 살펴보려 한다.

사회적 지지는 인간의 기본적인 사회적 욕구충족으로 심리적 안녕과 적응에 필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환경자원으로, 의미 있는 주변인들로부터 충분한 사회적 지지를 받고 있다는 믿음이다[18].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는 질풍노도의 시기에 안정감을 유지하여 효율적으로 기능하는 것을 도와 일상생활에서 긍정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하

고, 공격 욕구를 감소시키는 요인이다[19]. 청소년은 주변인들로부터 받는 지지에서 감정적으로 안정감을 찾아 일상생활을 긍정적으로 활동하게 되고, 부정적인 활동에서는 사회적 지지로 인해 자기조절 능력이 증진되어 공격적인 행동을 감소[2]시키는 힘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즉, 청소년은 자신에게 있어 중요한 사회 환경적 요인이 될 수 있는 부모, 친구, 교사로 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는 한 인간이 책임 있는 사회의 구성원이 되기 위한 필수적인 자원으로 삶의 전반에 영향을[20] 미치는 요인이 된다.

부모, 친구, 교사는 청소년에게 필요한 정서적·물질적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심리적인 안정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좌절을 극복하게 하는 원동력이며 사회적 지지원이다. 또한,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는 문제해결 능력을 강화시켜 줌으로서[21] 환경적인 변화나 스트레스를 극복하는데 있어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22]. 위의 사례를 통해, 사회적 지지 요인인 부모, 친구, 교사 지지는 청소년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 중에서 청소년의 공격성을 더 감소시키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적 지지는 공격성과 관련이 있지만, 청소년의 창의력 향상에도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본다. 즉, 사회적 지지는 청소년의 그것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분야에서 진행된 연구는 아직 미비하다.

그릇은 Duckworth et al.[23]에 의해서 처음 소개된 개념으로 장기적인 목표를 위한 관심의 지속성과 흥미 유지를 나타낸다. 최근 교육학과 심리학 분야에서는 청소년의 성공 예측 요인으로 자신의 목적이나 목표에 대한 장기적인 끈기, 열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릇에 주목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24].

사회적 지지는 주요한 주변인들과의 친밀관계 유지가 가능하여 조인 또는 개입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지속적인 응원과 지지를 함으로써 목표성취를 위해 노력하게 하는 요인으로 그릇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25,26]. 또 다른 선행연구[16,27-30]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긍정심리자본과 그릇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릇이 개인의 부정적 정서를 완화시키고 자신의 행동이 통제 가능함으로써 발현되는 것임을 고려했을 때[31] 그릇의 역량을 키워줌으로서 공격적인 행동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Jo[32]의 연구에서도 그릿 점수가 높은 아동·청소년일수록 공격성이 유의미하게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비슷한 청소년기의 행동양식으로 비행과의 관계에서도 그릿과 청소년의 비행이 부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그릿과 유사한 자기조절 능력이나 통제와 같은 환경요인들이 청소년의 공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연구결과[33,34]와, 그릿이 청소년의 공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그릿이 노력과 끈기, 흥미 등을 지속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장기적인 영향으로 보고하고 있다[9].

그릿의 성격은 불변의 특성이 아닌 인간 발달과정 속에서 향상되어지고 길러질 수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23], 그릿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여 이를 탐색하는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 따라서, 그릿이 청소년의 공격성과 같은 문제행동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그릿 함양이나 정서적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본다.

이에 청소년의 공격성과 관련하여 다양한 각도에서의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청소년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적극적으로 그릿을 성장시킬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와 공격성의 관계에서 그릿이 중요한 매개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는 사회복지학문에서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그릿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 청소년의 공격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가 공격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와 공격성 간의 관계에서 그릿이 매개역할을 하는가?

2. 연구방법

2.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인 부모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가 그릿을 매개로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영향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도식을 제시하였다(Fig. 1).



Fig. 1. Research model

2.2 조사대상자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의 분석자료는 2018 아동·청소년 패널(KCYPS)조사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KCYPS 2018 조사는 아동·청소년기의 복합적인 변화 양상을 체계적이며 다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며,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합한 자료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2018 아동·청소년 패널(KCYPS)조사에 참여한 중학교 1학년 2,590명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2.3 측정 도구

2.3.1 독립변수: 사회적 지지(부모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

본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부모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2018 아동·청소년 패널(KCYPS)조사에서 활용된 사회적 지지 구성요인 문항을 사용하였다. 먼저, 부모지지 측정은 Kim & Lee[35]가 개발한 한국판 청소년용 동기모형 부모양육태도 척도를 활용하였다. 부모양육태도 척도는 총 6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부모의 지지에 해당하는 긍정적 양육태도 요인 따스함 4문항과 자율성지지 4문항 총 8문항을 사용하였다. 모든 문항은 리커트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지지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분석을 위해 역 문항들을 재코딩하였고, 모든 문항을 합산하여 평균값으로 분석하였다. 척도의 Chronbach α 값은 .927로 나타났다.

친구지지 측정은 Bae et al.[36]가 개발한 또래관계 질 척도를 활용하였고 총 13문항으로 상관계수가 .04 미만인 4문항은 제거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모든 문항은 리커트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친구의 지지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분석을 위해 역 문항들을 재코딩

하였고, 모든 문항을 합산하여 평균값으로 분석하였다. 척도의 Chronbach α 값은 .891로 나타났다.

교사지지 측정은 Kim & Kim[37]가 개발한 학생-교사 애착관계 척도를 활용하였고 총 14문항으로 상관계수가 .04 미만인 1문항을 제거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모든 문항은 Likert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분석을 위해 역 문항들을 재코딩하였고, 모든 문항을 합산하여 평균값으로 분석하였다. 척도의 Chronbach α 값은 .915로 나타났다.

2.3.2 매개변수: 그릿

본 연구에서 그릿을 측정하기 위해 2018 아동·청소년 패널(KCYPS)조사에서 활용된 Kim & Hwang [38]이 한국판 아동용 끈기(Grit) 척도를 활용하였고, 총 8문항으로 상관계수가 .04 미만인 2문항을 제거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모든 문항은 Likert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끈기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분석을 위해 역 문항들을 재코딩하였고, 모든 문항을 합산하여 평균값으로 분석하였다. 척도의 Chronbach α 값은 .738로 나타났다.

2.3.3 종속변수: 공격성

본 연구에서 공격성을 측정하기 위해 2018 아동·청소년 패널(KCYPS)조사에서 활용된 Cho & Lim[39]이 개발한 아동의 정서, 행동문제 자기보고형 평정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6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4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공격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분석을 위해 모든 문항을 합산하여 평균값으로 구성하였고, 척도의 Chronbach α 값은 .839로 나타났다.

2.4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하였다. 둘째, 주요 변인들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하였다. 셋째, 주요 변인들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피어슨의 상관관계 분석을 하였다. 넷째,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과 공격성의 관계에서 그릿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 & Kenny[40]의 3단계 회귀분석을 하였다. 다섯째,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 통계프로그램 SPSS WIN 25.0을 사용하였다.

3. 연구결과

3.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은 남학생 1,405명(54.2%), 여학생 1,185명(45.8%), 부모와의 소통 시간은 1시간 미만 735명(28.4%), 1시간~3시간 미만 1,425명(55.0%), 3시간 이상 430명(16.6%), 친구들과의 놀이시간은 1시간 미만 753명(29.1%), 1시간~3시간 미만 1,205명(46.5%), 3시간 이상 632명(24.4%), 주관적 행복감은 불행한 편 261명(10.1%), 행복한 편 2,329명(89.9%)으로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	section	n	%
Gender	boy	1405	54.2
	girl	1185	45.8
Talking time with parents	less than 1 hour	735	28.4
	1-3 hour	1425	55.0
	more than 3 hours	430	16.6
Hanging out with friends	less than 1 hour	753	29.1
	1-3 hour	1205	46.5
	more than 3 hours	632	24.4
Happiness	unhappy	261	10.1
	happy	2329	89.9

3.2 기술통계 분석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분석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먼저, 부모지지의 평균값은 3.36, 친구지지의 평균값은 3.12, 교사지지의 평균값은 2.83, 그릿의 평균값은 2.66, 공격성의 평균값은 1.92로 나타났다. 모든 변인들의 왜도와 첨도값은 절대값 .11~1.00으로 3과 10을 넘지 않아, 정규성이 확보됨을 확인했다.

Table 2. Characteristics of major variables

variable	Min	Max	Mean	S.D	Skew	Kurt
①	1.00	4.00	3.36	.54	-.48	-.19
②	1.00	4.00	3.12	.51	-.32	.76
③	1.00	4.00	2.83	.51	-.16	1.00
④	1.00	4.00	2.66	.51	.28	.20
⑤	1.00	4.00	1.92	.59	.11	-.54

①Parent Support ②Friend Support ③ Teacher Support ④Grit ⑤Aggression

3.3 상관관계 분석

주요 변인들의 피어슨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Table 3과 같다. 먼저, 부모지지는 친구지지($r = .35, p < .01$), 교사지지($r = .41, p < .01$), 그릿($r = .34, p < .01$)와 정적인 상

관관계가 나타났고, 공격성($r = -.34, p < .01$)는 부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친구지지는 교사지지($r = .38, p < .01$), 그릿($r = .28, p < .01$)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공격성($r = -.26, p < .01$)은 부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교사지지는 그릿($r = .41, p < .01$)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공격성($r = -.31, p < .01$)은 부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그릿은 공격성($r = -.47, p < .01$)은 부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Table 3. Correlation among major variables

variable	Coefficient				
	①	②	③	④	⑤
①	1				
②	.35**	1			
③	.41**	.38**	1		
④	.34**	.28**	.41**	1	
⑤	-.34**	-.26**	-.31**	-.47**	1

주) ** $p < .01$

① Parent Support ② Friend Support ③ Teacher Support ④ Grit
⑤ Aggression

3.4 매개효과 분석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 부모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그릿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 & Kenny[40]의 3단계 회귀 분석을 하였다. 분석에 앞서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인 성별, 부모와의 소통 시간, 친구들과 노는 시간, 행복감을 통제변수로 투입하였고, 모두 더미 변수로 변환하였다. 또한, 각 분석결과에서 path 1은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미치는 영향, path 2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 path 3은 매개변수가 독립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한다.

3.4.1 부모지지와 공격성의 관계에서 그릿의 매개효과

청소년의 부모지지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그릿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Model 1은 독립변수인 부모지지가 매개변수인 그릿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통제변수인 성별($\beta = -.09, p < .001$), 부모와의 소통 시간1($\beta = -.12, p < .001$), 부모와의 소통 시간2($\beta = -.06, p < .05$), 행복감($\beta = .14, p < .001$), 부모지지($\beta = .27, p < .001$)는 그릿에 유의미한 영향이 확인됐다.

Model 1의 모형적합도는 $F = 63.88, p < .001$,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종속변수에 대한 설명력은 약 15%로 나타났다. Model 2는 독립변수인 부모지지가 종속변수

인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통제변수인 성별($\beta = -.04, p < .05$), 부모와의 소통 시간1($\beta = .10, p < .001$), 부모와의 소통 시간2($\beta = .06, p < .05$), 친구들과 노는 시간1($\beta = -.09, p < .001$), 친구들과 노는 시간2($\beta = -.08, p < .001$), 행복감($\beta = -.16, p < .001$), 부모지지($\beta = -.27, p < .001$)는 공격성에 유의미한 영향이 확인됐다. Model 2의 모형적합도는 $F = 67.51, p < .001$,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종속변수에 대한 설명력은 약 16%로 나타났다. Model 3는 매개변수인 그릿이 종속변수인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통제변수인 친구들과 노는 시간1($\beta = -.07, p < .01$), 친구들과 노는 시간2($\beta = -.07, p < .01$), 행복감($\beta = -.11, p < .001$), 부모지지($\beta = -.17, p < .001$), 그릿($\beta = -.37, p < .001$)는 공격성에 유의미한 영향이 확인됐다. Model 3의 모형적합도는 $F = 121.52, p < .001$,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종속변수에 대한 설명력은 약 27%로 나타났다. 또한, Model 1과 Model 3의 결과에서 부모지지가 그릿으로 인해 공격성에 대한 영향력이 낮아짐을 확인했고, 이는 부모지지와 공격성의 관계에서 그릿이 부분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

Table 4. Mediated effects 1

Variable	Model 1 (path 1)		Model 2 (path 2)		Model 3 (path 3)	
	B	β	B	β	B	β
Gender	.10	.09***	-.04	-.04*	-.00	-.00
Talking time with parents1	-.13	-.12***	.13	.10***	.08	.06*
Talking time with parents2	-.06	-.06*	.07	.06*	.05	.04
Hanging out with friends1	.04	.04	-.11	-.09***	-.10	-.07**
Hanging out with friends2	.04	.04	-.10	-.08***	-.08	-.07**
Happiness	.23	.14***	-.31	-.16***	-.21	-.11***
Parent Support	.25	.27***	-.30	-.27***	-.19	-.17***
Grit					-.44	-.37***
F	63.88***		67.51***		121.52***	
R	.38		.39		.52	
R2	.15		.16		.27	
Durbin-Watson	1.95		1.97		1.97	

* $p < .05$, ** $p < .01$, *** $p < .001$

3.4.2 친구지지와 공격성의 관계에서 그릿의 매개효과

청소년의 친구지지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그릿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Model 1은 독립변수인 친구지지가 매개변수인 그릿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통제변수인 성별($\beta=.13, p<.001$), 부모와의 소통 시간1($\beta=-.16, p<.001$), 부모와의 소통 시간2($\beta=-.07, p<.01$), 친구들과 노는 시간1($\beta=.12, p<.01$), 친구들과 노는 시간2($\beta=.07, p<.001$), 행복감($\beta=.17, p<.001$), 친구지지($\beta=.27, p<.001$)는 그릿에 유의미한 영향이 확인됐다. Model 1의 모형적합도는 $F=64.44, p<.001$,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종속변수에 대한 설명력은 약 15%로 나타났다. Model 2는 독립변수인 친구지지가 종속변수인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이다.

Table 5. Mediated effects 2

Variable	Model 1 (path 1)		Model 2 (path 2)		Model 3 (path 3)	
	B	β	B	β	B	β
Gender	.13	.13***	-.08	-.07***	-.02	-.02
Talking time with parents1	-.18	-.16***	.20	.15***	.12	.09***
Talking time with parents2	-.07	-.07**	.10	.08**	.07	.06*
Hanging out with friends1	.13	.12***	-.21	-.16***	-.15	-.12***
Hanging out with friends2	.07	.07**	-.13	-.11***	-.10	-.09***
Happiness	.28	.17***	-.38	-.19***	-.26	-.13***
Friend Support	.26	.27***	-.28	-.24***	-.16	-.14***
Grit					-.44	-.38***
F	64.44***		61.66***		117.11***	
R	.39		.38		.52	
R2	.15		.14		.27	
Durbin-Watson	1.96		1.98		1.98	

* $p<.05$, ** $p<.01$, *** $p<.001$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통제변수인 성별($\beta=-.07, p<.001$), 부모와의 소통 시간1($\beta=.15, p<.001$), 부모와의 소통 시간2($\beta=.08, p<.01$), 친구들과 노는 시간1($\beta=-.16, p<.001$), 친구들과 노는 시간2($\beta=-.11, p<.001$), 행복감($\beta=-.19, p<.001$), 친구지지($\beta=-.24, p<.001$)는 공격성에 유의미한 영향이 확인됐다. Model 2의 모형적합도는 $F=61.66, p<.001$,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종속변수에 대한 설명력은 약 14%로 나타났다. Model 3는 매개변수인 그릿이 종속변수인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통제변수인 부모와의 소통 시간1($\beta=.09, p<.001$), 부모와의 소통 시간2($\beta=.06, p<.05$), 친구들과 노는 시간1($\beta=-.12, p<.001$), 친구들과 노는 시간2($\beta=-.09, p<.001$), 행복감($\beta=-.13, p<.001$), 친구지지($\beta=-.14, p<.001$), 그릿($\beta=-.87, p<.001$)는 공격성

에 유의미한 영향이 확인됐다. Model 3의 모형적합도는 $F=117.11, p<.001$,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종속변수에 대한 설명력은 약 27%로 나타났다. 또한, Model 1과 Model 3의 결과에서 친구지지가 그릿으로 인해 공격성에 대한 영향력이 낮아짐을 확인했고, 이는 친구지지와 공격성의 관계에서 그릿이 부분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

3.4.3 교사지지와 공격성의 관계에서 그릿의 매개효과
 청소년의 교사지지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그릿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Model 1은 독립변수인 교사지지가 매개변수인 그릿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통제변수인 성별($\beta=.09, p<.001$), 부모와의 소통 시간1($\beta=-.13, p<.001$), 부모와의 소통 시간2($\beta=-.06, p<.05$), 행복감($\beta=.15, p<.001$), 교사지지($\beta=.36, p<.001$)는 그릿에 유의미한 영향이 확인됐다. Model 1의 모형적합도는 $F=97.31, p<.001$,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종속변수에 대한 설명력은 약 21%로 나타났다. Model 2는 독립변수인 교사지지가 종속변수인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통제변수인 성별($\beta=-.04, p<.05$), 부모와의 소통 시간1($\beta=.14, p<.001$), 부모와의 소통 시간2($\beta=.08, p<.01$), 친구들과 노는 시간1($\beta=-.07, p<.01$), 친구들과 노는 시간2($\beta=-.07, p<.01$), 행복감($\beta=-.19, p<.001$), 교사지지($\beta=-.25, p<.001$)는 공격성에 유의미한 영향이 확인됐다. Model 2의 모형적합도는 $F=65.31, p<.001$,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종속변수에 대한 설명력은 약 15%로 나타났다. Model 3은 매개변수인 그릿이 종속변수인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통제변수인 부모와의 소통 시간1($\beta=.09, p<.001$), 부모와의 소통 시간2($\beta=.06, p<.01$), 친구들과 노는 시간1($\beta=-.07, p<.01$), 친구들과 노는 시간2($\beta=-.06, p<.01$), 행복감($\beta=-.14, p<.001$), 교사지지($\beta=-.17, p<.001$), 그릿($\beta=-.37, p<.001$)는 공격성에 유의미한 영향이 확인됐다. Model 3의 모형적합도는 $F=113.81, p<.001$,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종속변수에 대한 설명력은 약 26%로 나타났다. 또한, Model 1과 Model 3의 결과에서 교사지지가 그릿으로 인해 공격성에 대한 영향력이 낮아짐을 확인했고, 이는 교사지지와 공격성의 관계에서 그릿이 부분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

Table 6. Mediated effects 3

Variable	Model 1 (path 1)		Model 2 (path 2)		Model 3 (path 3)	
	B	β	B	β	B	β
Gender	.09	.09***	-.05	-.04*	-.01	-.00
Talking time with parents1	-.14	-.13***	.18	.14***	.12	.09***
Talking time with parents2	-.06	-.06*	.10	.08**	.07	.06*
Hanging out with friends1	.02	.02	-.10	-.07**	-.09	-.07**
Hanging out with friends2	.02	.02	-.08	-.07**	-.08	-.06**
Happiness	.25	.15***	-.38	-.19***	-.27	-.14***
Teacher Support	.36	.36***	-.29	-.25***	-.14	-.17***
Grit					-.44	-.37***
F	97.31***		65.31***		113.81***	
R	.46		.39		.51	
R2	.21		.15		.26	
Durbin-Watson	1.93		1.94		1.96	

*p<.05, **p<.01, ***p<.001

3.5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Sobel test)

그릿의 매개효과에 대한 유의성 검증결과는 Table 7과 같다. 먼저, 부모지지와 공격성의 관계에서 Sobel test 결과는 Sobel test statistic=-11.11, p<.001, 친구지지와 공격성의 관계에서 Sobel test 결과는 Sobel test statistic=-11.52, p<.001, 교사지지와 공격성의 관계에서 Sobel test 결과는 Sobel test statistic=-14.04, p<.001로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과 공격성의 관계에서 매개변수로서 그릿은 간접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

Table 7. Sobel test

path	Sobel test Statistic	p
Parent support→Grit→Aggression	-11.11	.000
Friend support→Grit→Aggression	-11.52	.000
Teacher support→Grit→Aggression	-14.04	.000

*p<.05, **p<.01, ***p<.001

4.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그릿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분석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논의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인 부모지지와 친구지지 및 교사지지가 공격성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16]에서 사회적 지지가 공격성에 부정 상관을 보여 본 연구와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선행연구[2]에서도 부모와 교사의 지지가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처럼 청소년의 공격적인 행동을 낮추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학생들의 문제 상황을 공감해주고 소통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교원연수 시 의사소통 유형에 대한 부분을 직접 시연해 보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또한, 학교에서도 교사와 학생 간의 충분한 소통의 관계형성에 필요한 정책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가족과 친구지지를 도출하기 위해 청소년들에게 경청하는 방법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줄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 또는 지역사회 각종 복지관 등에서 자녀와 부모가 함께 만들어 보는 요리나 댄스를 함께 하여 서로 소통하고 지지를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여 보급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에게 의미가 있는 사회적 지지(부모, 친구, 교사)이 그들의 언어나 행동 등으로 인해 자녀의 공격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인식하게 될 것이다. 교사와 부모 및 지역사회는 청소년이 지각하고 기대하는 지지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3]. 이러한 연구결과는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의 적극적인 지지는 청소년의 공격성을 감소시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인 부모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그릿이 부분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이 인식하는 친구지지와 진로포부 관계에서 친구지지가 그릿의 끈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41] 본 연구결과와 유사함을 볼 수 있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그릿에 어떤 변수가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한 Chung et al.[42]의 연구결과에서도 교사관계와 긍정적 친구관계는 그릿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일맥상통함을 볼 수 있다.

이에 교사들은 학생들의 목표에 대해 끈기와 흥미를 찾을 수 있도록 학생들 눈높이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학생들과 함께 개발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청소년들이 성취감을 맛볼 수 있도록 가정과 학교에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성 있다.

그릿과 공격성과 관련된 선행연구[9]에서도 그릿이 청소년의 공격성과 주의집중 문제에 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그릿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이나 상담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학교의 방과 후 프로그램 또는

지역지지 자원인 청소년상담센터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적극적인 홍보와 활용이 필요하다고 본다.

위와 같은 연구결과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갖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모든 청소년에게 일반화하기 어려움이 있었다.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연령을 대상으로 그릿의 매개에 대한 관계를 규명하여 연령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면밀히 연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그릿의 중단적 변화를 관찰하지 못하였다는데 한계점이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그릿의 중단적 데이터를 활용하여 장기적이고 성장과 발달의 추적이 가능한 연구를 기대한다.

REFERENCES

- [1] MBN news (2022). <https://www.mbn.co.kr/news/society/4804319>
- [2] M. J. Seo. (2015). Effects of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Basic Psychological Needs of Middle School Students on Aggression. *The Korean Association for Infant Mental Health*, 8, 53-69.
UCI : I410-ECN-0102-2021-100-001393690
- [3] A. Y. Lee. (2011). Influencing Factors of Aggression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A Study on the Experience of Violence and Abuse Between Couples. Sungsil University.
- [4] I. K. Park. (2010). Aggression and Emotional Control Ability of Adolescents According to Parent-Child Communication. Hanyang University.
- [5] M. R. Jeon. (2006). The Effect of Group Counseling Based on Solution-Based Counseling on the Aggressiveness and Emotional Ability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Ewha Womans University.
- [6] L. D. Eron. (1987). The Development of Aggression Behavior from the Perspective of a Developing Behaviorism. *American Psychologist*, 42(5), 435-442. DOI : 10.1037/0003-066X.42.5.435
- [7] L. Rolf & S. R. Magda. (1998). Development of Juvenile Aggression and Violence: Some Common Misconceptions and Controversies. *American Psychologist*, 53(2), 242-259.
- [8] J. B. Kupersmidt & J. D. Coie. (1990). Preadolescent Peer Status, Aggression, and School Adjustment as Predictors of Externalizing Problems in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61(5), 1350-1362. DOI : 10.1111/j.1467-8624.1990.tb02866.
- [9] Y. J. Jang., S. Y. Lee., Y. N. Jang & S. H. Hong. (2021). Relationship between Youth Grit, Attention Problem and Aggression: Verifying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Cell Phone Dependence. *The Korea Education Review*, 27(1), 377-405.
UCI : I410-ECN-0102-2022-300-000580497
- [10] H. Y. Yu & J. A. Paik. (2020). The Effect of Multicultural Youth's Attitude Toward Bicultural Acceptance on Depression and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Contraction. *Journal of Industrial Convergence(JIC)*, 19(1), 1-2.
- [11] L. Berkowitz. (1993). Aggression: Its Causes, Consequences, and Control, New York: Academic.
- [12] M. Marsee & P. Frick. (2007). Exploring the Cognitive and Emotional Correlates to Proactive and Reactive Aggression in a Sample of Detained Girl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5(6), 969-981. DOI : 10.1007/s10802-007-9147
- [13] M. J. Park & B. G. Choi. (2004). Ecological Variables that Affect the Relational Aggression of Adolescents.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2(4), 95-104.
- [14] Y. R. Park & J. R. Lee. (2011).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Level of Self-Esteem and Self-Esteem Stability and Aggression. *Korean Association of Childcare & Education*, 7(2), 61-79.
- [15] J. H. Park & H. N. Song. (2011). The Effect of the Self-Regulating Ability Promotion Program on the Cognitive and Emotional Control Ability and External Aggression of Infants.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31(1), 157-182.
- [16] J. Y. Park & H. S. Lee. (2019).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Learning Commitment, and College Life Adaptation that Affects the Academic Continuity of College Students Who are Previously Employed.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38(1), 97-126.
UCI(KEPA) : I410-ECN-0102-2019-300-001131593
- [17] Y. S. Park. (2018). The Effect of Adolescents' Dependence on Smartphones on Aggression through Depression. *Journal of Welfare for the Correction*, 55(1), 23-48.
<https://www.earticle.net/Article/A342377>
- [18] G. T. Jeong. (2003).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and Perceived Stress on Youth Aggression.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12(2), 151-162.
- [19] P. Orpinas & R. Frankowski. (2001). The Aggression Scale: A Self-Report Measure of Aggressive behavior for Young Adolescents. *Th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21(1), 50-67.

- DOI : 10.1177/0272431601021001003
- [20] M. H. Kang. (2006).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Control Ability and Aggression of Male and Female Children and Adaptation to School Life. Ewha Womans University.
- [21] A. Vaux. (1988). *Social Support: Theory, Research, and Intervention*. NY: Praeger Publishers.
- [22] E. Dubow & D. G. Ulman. (2010). Assessing Social Support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The Survey of Children's Social Support.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8(1), 52-64. DOI : 10.1207/s15374424jccp1801_7
- [23] A. L. Duckworth., C. Peterson., M. D. Matthew & D. R. Kelly. (2007). Grit: Perseverance and Passion for Long-Term Goa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2(6), 1087-1101. DOI : 10.1037/0022-3514.92.6.1087
- [24] H. W. Jeong., Y. R. Kim & S. Y. Park. (2020). Exploring Variables that Affect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tudents' Grits. *Korean Association for Learner 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8), 673-693. DOI : 10.22327/kei.2022.40.1.053
- [25] J. A. Yoo., E. A. Cho & A. R. Lee. (2019). Mediating Effect of Grit in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of College Students on Career Barriers. *Korean Association for Learner 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9(10), 973-994. DOI : 10.22251/jlcci.2019.19.10.973
- [26] H. J. Lee. (2020).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and Grit,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Employment Possibility According to Individual Characteristics of College Students. *Korean Association for Learner 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13), 997-1022. DOI : 10.22251/jlcci.2020.20.13.997
- [27] S. Y. Yang. (2017).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for Service Employees on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Personal Creativity, and Performance. *Journal of Foodservice Management*, 20, 7-26. <https://doi.org/10.5762/KAIS.2019.20.1.304>
- [28] H. R. Jeong & Y. M. Seo. (2019).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indset, Social Support, and Grit of a Prospective Infant Tteacher. *International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25(1), 135-154. DOI : 10.18023/ijece.2019.25.1.007
- [29] J. Kang. (2020). Mediating Effects of Introspection Intelligence and Daily Stres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and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f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Korean Association for Learner 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20), 1217-1238. DOI : 10.22251/jlcci.2020.20.20.1217
- [30] G. W. Jeong & S. H. Bae. (2020).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on Grit in High School Students: Mediating Effect of Learning Motivation. *Journal of Wellness*, 15(4), 243-257. DOI : 10.21097/ksw.2020.11.15.4.243
- [31] H. M. Hwang. (2019). Exploring the Meaning and Promotion of Grit in Academic Counseling. *The Korean Journal of Elementary Counseling*, 18(1), 1-21. <https://www.earticle.net/Article/A346480>
- [32] J. S. Jo. (2020). A Study on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Parenting Attitude, Grit Score, Cell Phone Dependence, and Aggression. *Korean Association of Addiction Crime*. 10(3). 83-103. DOI : 10.26606/kaac.2020.10.3.5
- [33] G. H. Doe & J. M. Lee. (2011). The Relationship Structure between Adolescents' Internet Addiction, Self-Esteem, Self-Control, and Aggression. *Journal of Families and Better Life*, 29(3), 59-69.
- [34] J. S. Kim., H. J. Moon & S. I. Hwang. (2014). The Effect of Parenting Attitudes and Social Support on Middle School Students' Reliance on Cell Phone: The Mediating Effect of Aggression.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27. 1-24. UCI : G704-SER000009000.2014.27..001
- [35] T. M. Kim & E. J. Lee. (2017).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Parents as Social Context Questionnaire for Adolescents: PSCQ_KA.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4(3), 313-333. DOI : 10.21509/KJYS.2017.03.24.3.313
- [36] S. M. Bae., J. Y. Hong & M. H. Hyun. (2015). A Validation Study of the Peer Relationship Quality Scale for Adolesc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2(5), 325-344. UCI : G704-000387.2015.22.5.004
- [37] J. B. Kim & N. H. Kim. (2009). Validation of Student-Teacher Attachment Relationship Scale (STARS) as a Basis for Evaluating Teachers' Educational Competencies. *Korean Educational Psychology Association*, 23(4), 697-714. UCI : G704-000199.2009.23.4.009
- [38] H. M. Kim & M. H. Hwang. (2015). Validation of the Korean Grit Scale for Children. *The Institute for Education and Research Gyeong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35(3), 63-74. DOI : 10.25020/je.2015.35.3.63
- [39] B. H. Cho & K. H. Lim. (2003).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Emotional or Behavioral Problems Scal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5(4), 729-746. UCI : G704-000523.2003.15.4.005
- [40] R. M. Baron & D. A. Kenny.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 [41] B. K. Park. (2021).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Recognized by College Students on Career □ Aspiration: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Grit. *Journal of Employment and Career(JEC)*, 11(3), 143-162.

DOI : 10.17703/IJACT.2020.8.1.98

- [42] H. W. Chung., A. R. Kim & Y. E. Baek. (2022). Exploring Influencing Variables on a Longitudinal Change of Middle School Students' Grit. *Korean Education Inquiry*, 40(1), 53-74.

DOI : 10.22327/kei.2022.40.1.053

신 명 옥(Myung-Oag Shin)

[정회원]



- 2016년 8월 : 한양대학교 특수학과 (상담심리석사)
- 2019년 3월~현재 : 한세대학교 사회복지행정학과 박사과정

- 관심분야 : 가족, 청소년, 가족상담
- E-Mail : kefori@hanmail.net

방 해 순(Hae-Soon Bang)

[정회원]



- 2014년 2월 : 한세대학교 사회복지학(사회복지학석사)
- 2017년 8월 : 한세대학교 사회복지학(사회복지학박사)
- 2014년 7월~현재 : 군포시립삼성마을어린이집 원장

- 관심분야 : 가족, 영유아, 여성
- E-Mail : newsaem@hanmail.net